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제약과 경험 분석

근거이론 접근*

Analysis of the leisure constraints and experiences of mothers whose children are candidates for university entrance: A grounded theory approach

이 경 여** · 이 훈***

Lee, Kyung-Yur · Lee, Hoon

요약 : 한국의 학벌주의 문화와 과열된 교육 관련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반면 사교육의 핵심 수요자인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을 조명하는 연구는 전무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녀 대학 입학 준비 시기 동안 사교육에 적극적이었던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제약과 여가 활동 경험(참여, 배제)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탈 고3 엄마에게 자녀 대학 입시 기간 중의 여가제약과 경험에 대해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이론 기법을 활용하여 총 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은 30개의 하위범주, 11개의 상위범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인과 조건은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 중심 현상은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종교 여가 활동 증대', 맥락 조건은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 중재 조건은 '자본의 활용', '우선순위 설정',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행동적·인지적 협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여가 활동 참여', '여가 활동 배제', '여가 활동 중립'으로 도출되었다. 선택 코딩 결과 핵심 범주로 분석된 '자녀 사교육에 적극적인 한국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활동 의미 찾기'는 3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워라밸형, 전통형, 중립형으로 유목화되었고 각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특징과 근거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자녀 사교육에 적극적인 한국 엄마가 대입 수험생 자녀의 입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가제약과 경험을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 이론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 유자녀 중년 여성의 여가정책과 인력 활용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용이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과 상담 치료 및 취업 재교육 관련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한국 엄마, 근거이론, 중년층 여가, 여가 경험, 여가제약, 사교육

Received October 23, 2022 Revised November 21, 2022 Accepted November 22, 2022

* 이 논문은 제92차 한국관광학회 부산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으며,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9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C2A02082896).

**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연구교수. e-mail: kyungyur@hanyang.ac.kr

Ph.D., Research Professor, Tourism Research Institute, Hanyang University.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e-mail: hoon2@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Copyright ©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CC BY,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authors and source are properly cited.

ABSTRACT : While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on academic elitism in Korea and excessive education fever, none have examined the leisure experiences of mother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ir children's shadow education for university entrance exam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better understand those mothers' leisure experiences. From April to October 2022,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leisure experiences of mothers living in Korea.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the leisure experiences of mothers who dedicated themselves to their children's shadow education for college entrance were derived from 30 sub-categories and 11 categories, and a paradigm model was presented as a result. The developed model was named 'Finding the meaning of leisure activities for Korean mother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ir children's shadow educa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 and it wa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work-life balanced type,' 'conventional type,' and 'in-between type.' The theoretical contributions stem from the study's originality in analyzing the leisure experiences of Korean mothers during their children's university entrance exam period. Furthermor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leisure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utilizing human resources of middle-aged women with highschoolers,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treatment and job retraining, were proposed.

Key words : Korean mother, Grounded theory, Midlife leisure, Leisure experience, Leisure constraints, Shadow education

I. 서 론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지나치다. 최근 CNN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아이 양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조선일보, 2022.04.11.). 양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은 사교육비인데, 2021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시장 규모가 약 23조 4천억 원으로, 2020년 19조 4천억 원 대비 21% 증가했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22a). 이미 몇 해 전이지만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 사교육비의 5배라고 보고되었다(OECD, 2014). 한국은 OECD 국가 중 중등학교 졸업생 비율(secondary graduation rate)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육 수준이 높지만(OECD, 2019),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성별에 따른 임금(wage)의 차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OECD, 2022.3.27). 즉, 자녀 사교육

의 주체인 어머니가 보유한 지식 자본이 생산 노동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자녀에 대한 재생산 노동에 투여되어 지나친 교육열이라는 사회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수민, 김경식, 2021).

학술연구에서는 수험생 어머니 문제에 대해 대부분 교육학과 심리학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수학능력시험이란 성인이 되기 전 겪는 Van Gennep (1961)의 통과의례(rite of passage)에 비유할 수 있다. 고3 수험생 엄마는 자녀가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진입하는 중요한 관문의 조력자로서 자녀 양육의 거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시기이므로 선행연구들은 학습 관련 사교육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거시적으로는 양육 방법(Janssen, 2015; Zhang, 2020), 동서양 양육의 문화비교(ng et al., 2014; Qu et al., 2017) 등으로 연구되었고, 미시적으로는 사교육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엄마의 내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자녀의 성적과 자신의 성적 동일시, 학벌 사회에서 받는 열등감, 자녀의 사교육 책임자로서의 압박감, 다른 어머니들과의 경쟁, 직장 엄마로서의 소외감, 자본 결핍으로 인한 죄책감 등이다(김희정, 조영아, 2018; Ng et al., 2014). 특정 집단인 고3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도 간간이 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며(고인순, 김경신, 2001; 양성은, 2005; 이정화, 2004; 최지영, 2005) 주제 또한 심리학 관점의 연구로 구성되어 20여 년 전의 수험생 어머니의 상황과 현재의 어머니 역할 및 여가 경험에는 상당한 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교육 실천의 수요자로서 한국 어머니의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조명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가 활동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가(leisure)는 일반적으로 노동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된 이분법적 사고를 담지하고 있다. 여가란 자유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문화예술, 국민관광, 생활체육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법제처, 2022).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은 개인, 사회, 국가적으로도 주요한 이슈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여가생활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박나래, 이미숙, 2021).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16년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2021년에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 약자의 여가 활동 증진과 아동의 적절한 여가 보장까지 명시되어있어, 여가 활동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컨슈머인사이트 (2022.05.17.)가 6개월간 1만 1,281명을 대상으로 여가·문화·체

육 주제를 조사한 결과, 40대 남녀 모두 타 연령대에 비해 여가시간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충분한가의 인식도 33.2%로 가장 낮았다. 생애주기별로 볼 때 자녀 아동기 가구 여가시간(21.7시간)이 가장 짧고, 다음으로 자녀 청소년기(24.7시간)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자 하는 코호트는 자녀 청소년기 중에서도 고3 수험생 시기 어머니이며 그들의 여가 경험에 관해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여가 활동 참여는 만족감과 주관적 웰빙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이경여, 이훈, 2019; Rodríguez-Bravo et al., 2020),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나 중년층 여성 관련해서도 여가 활동 참여자들 삶의 만족과 주관적 웰빙의 긍정적 관계는 확인되어왔다(김동아, 2020; 양원희 외, 2021; Kekäläinen et al., 2018). 그리고 특수 상황에 처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 연구들 즉,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 관한 연구(정주영 외, 2012)나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전지열 외, 2019)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자녀 수험생 시기를 문제의 중심에 두고 이 시기 동안 어머니의 여가 경험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특수 코호트로 구별짓는 고3 즉,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여가제약과 경험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족 스트레스라는 범주에 자녀교육을 포함하여 조사한 여가 활동 연구로서 Hybholt et al. (2022)은 덴마크 중년층 여성들의 여가에 관해 가족과 자녀에 대한 시간과 노력 투자 부분에 대한 주부들 여가의 문제점을 조명하며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어머니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업무(즉, 아이의 사교육 매니저 역할)가 여가 활동을 저지하게 만든다. 한국

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자녀교육의 매니저 역할 행동은 현실적인 문제이며 과몰입으로 인해 여유와 여가가 없는 삶에 관해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여가제약과 이를 협상하는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이에 영향을 주는 맥락, 구조 조건과 대응 전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분석해야 대입 수험생 엄마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입 수험생 엄마의 특정 현상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구조적이며 통합적 이론을 제공하는 근거이론 접근(Strauss & Corbin, 1998)이 적합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가 연구와 교육학 연구에 접목시켜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행동을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데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중년기 유자녀 여성들의 여가 활동 정책 관련 입안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론 고찰

1.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고3이나 대입 수험생 엄마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경험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고3 자녀를 둔 엄마는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 중 대부분 중년에 속하는 시기이며 중년(midlife)을 역할(예, 멘토, 부모), 인생 사건의 시기, 인생 경험의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간주하여(Lachman, 2004), 유자녀 중년층의 연구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은 중년의 주요 도전과제를 생산성(generativity)으로 간주하고, 인생 과정에서 젊은이와 노인 사이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Erikson, 1963). 중년에 대한 명확한 시기는 연구자들 간 합의되기 어려운 부분이나 일

반적으로 40세에서 60세로 간주한다(Lachman et al., 2015). 중년은 성인 초기와 노년기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연령층으로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는 접근이 일반적이다(Levinson, 1978). Blanchflower and Oswald (2008)에 따르면, 일반인 설문조사에서도 인생의 행복 곡선은 40대 중년 즈음에 행복 수치가 가장 낮은 U-shape 곡선의 최저점을 찍는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년기를 긍정적인 요소로 구성된 삶으로 보기도 하는데 인생의 최고 기간으로서 힘이 응집된 정점으로 조명한다(Lachman et al., 2015). 따라서 중년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 둘 다 연구의 대상으로 양가적 가치를 지닌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미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Jang et al., 2019),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중년기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년에 적극 대비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중년층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여가 이론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론은 여가 제약(leisure constraints, Crawford & Godbey, 1987)과 여가 제약 협상(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Jackson et al., 1993)이다. 여가 제약은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barrier)이며 이것은 내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의 위계 순서로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는 이론이다(Crawford et al., 1991). 여가 제약 협상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여가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있을 경우 내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을 차례로 해결하여 여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Jackson et al., 1993). 여가제약과 여가 제약 협상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학자들이 주목하는 연구이며 지금도 이 세 가지 여가제약 틀 안에서 세분화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Jiang, et al., 2020; Nyaupane & Andereck, 2008).

예를 들면 다크투어리즘 지역을 방문하는 내적 제약은 Crawford et al. (1991)이 제시한 흥미 부족 외에도 트라우마 기억, 공포와 우울한 감정 등의 내적 제약이 도출되었다(Zheng et al., 2017). Nyaupane and Andereck (2008)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아리조나 지역으로의 여행 제약으로 구조적 제약을 시간, 비용, 장소 속성의 3가지 요인으로 세분화시켜 확인하였고, Jiang et al. (2020)은 자연 기반 관광에서 자연음향 여가제약에 대해 구조적 제약을 정보, 기대, 매력성 외에도 개인 활동, 환경적 맥락의 제약이 존재함을 세분화시켜 하위단계의 구조적 제약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로서 Kuykendall et al. (2020)은 직장 관련 여가제약 요인을 3가지 제시하였는데, '작업의 일정 관련 노동 관행, 조직의 규범, 그리고 작업의 감독자들'을 새롭게 밝혀내었다. '작업의 일정 관련 노동 관행'은 주로 저임금 노동자가 자신이 작업 스케줄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 타임 일이지만 풀 타임 이용가능'의 여가제약이고, '조직의 규범'은 고임금 노동자들이 이상적인 직업인으로서 조직에서 기대하는 모습으로서 또 다른 '일 관련 여가제약' 요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업의 감독자들이 여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여성이나 중년층의 직장인에 한정된 연구는 아니지만 Kuykendall et al. (2020)의 연구는 워라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여가가 일로 인해 어떻게 제약이 되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성들의 여가시간에 대한 제약은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Aitchison, 2005). 유자녀 중년 여성의 여가제약 관련 연구도 경험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Hybholt et al. (2022)는 덴마크 중년층 여성들이 직업과 가족에 대한 의무 때문에 나타나는 시간 제약과 관련

하여 개인의 여가시간에 운동을 실제적이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망하였다. 그 결과 중년 여성은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일의 유연성 그리고 일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시간을 요구하였고 자녀, 부모 또는 손녀와 관련된 새로운 시간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현대 덴마크 사회에서 중년 여성의 고용 시장 문화와 가족 및 직장 생활의 사회적 의무의 시간 구속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 여가시간이 크게 제한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스칸디나비아 여성들 여가시간의 품질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낮으며(Thrane, 2000), 미국의 경우에도 엄마들이 아빠들에 비해 개인의 여가시간에서 차지하는 무급의 일 혹은 양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Mattingly & Bianchi, 2003; Offer, 2016). 또한 호주, 덴마크와 프랑스 3개 국가를 비교했을 때에도 직장 엄마가 아이와 보내는 여가시간이 아빠를 포함한 여가시간보다 훨씬 많아 엄마가 사적인 여가시간을 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Craig & Mullan, 2011). 이것은 한국도 다르지 않은데 한국의 기혼여성이 여가스포츠 참여를 중단한 가장 큰 이유로는 시간 부족(시간적 여유,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정신적 여유)과 난이도(활동의 어려움, 위험감, 정보 부족)로 나타났으며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혼여성 스스로 사회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사회구조적 변혁수반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지현진, 2006). 다른 연구에서도 맞벌이 여성의 시간 압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둔 맞벌이 여성의 여가시간 결핍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옥, 고은주, 2015).

정리해보면, 유자녀 중년 여성의 여가 경험 연구에서 여가제약은 내적, 대인적, 구조적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른 제약으로 구분하는 연구로 확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약은 협상을 통해 여

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자녀 중년 여성은 일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개인 여가에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여가 제약 협상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아웃도어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분야로 이루어져서 세분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박정은, 이훈, 2013), 한국의 수험생 자모라면 누구나 통과의례로 겪는 고3 즉, 대입 수험생 시기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여가제약에 초점을 둔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2. 자녀 대학 입시 사교육과 엄마의 여가

학부모는 사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집단 즉, 사교육 관련 정보, 사교육 구매와 사교육 평가를 하고 있는 집단이지만, 사교육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임성택 외, 2012). 유자녀 중년 여성의 경우 엄마로서 자녀교육 서포트와 관련한 역할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자녀 서포트 역할 문제로서 자녀의 성적이 자신의 성적처럼 동일시되는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김희정, 조영아, 2018; Ng et al., 2014). 그리고 학벌 중심 사회에서 엄마가 받게 되는 열등감 문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의 사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압박감, 다른 어머니들과의 경쟁 문제, 직장 엄마로서의 소외감, 자본 결핍으로 인한 죄책감 등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이수민, 김경식, 2021). 여기서 자녀 사교육 매니저 역할에는 학원이나 과외를 알아보고 시간표 세팅 안배 의사결정, 학원에 자가용이나 직접 데려다주고, 입시 정보 대리 수집 설명회 참가 등 일체의 시간과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수민, 김경식(2021)은 어머니들이 사교육을 실천하는 원인으로 학벌주의, 가부장주의,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원인을 밝혔으며 이러한 구조들은 사교육

실천을 통해 서로 증첩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학부모가 자녀의 사교육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분석한 조영진 외 (2015)는 강원교육 중단연구 자료(2011-2013)를 활용하였는데, 학부모 중 성별 즉 어머니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 투자도 증가하였다. 사교육에 대한 동기과 비용도 사교육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에서 사교육 비용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결정도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좀 더 자녀들에게 많이 시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서구에서도 관련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사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다. 중국의 경우 사교육은 주요 시험(예, 대학입시) 기간 동안 분명히 나타나며 일부 학생의 경우 모든 수준의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이 발생하고 있고, 이 관습은 오랫동안 동아시아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현재 서부 및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 및 아프리카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Bray, 2013). 러시아의 경우에도 사교육 참여는 고등학생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oyalka & Zakharow, 2016). Choi and Park (2016)는, 한국 중학생 수학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는 사교육 활용 성향이 높은 학생들보다 낮은 학생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조영진 외 (2015)는 한국의 경우 국어성적이 사교육 유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수학과 영어성적은 다음 해 사교육 유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교육은 전 세계 어디서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어머니들이 조우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다가온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를 주도하는 주축으로서 고3 엄마의 삶과 여가 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없이는 한국의 사교육과 사교육의 중심에 있는 엄마 여가의 관계를 폭넓 게 논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대상자들 자신의 이해와 해석을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여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자녀 대학 입시를 경험한 엄마를 대상으로 그들의 여가 경험에 관한 현상 을 들여다보고 근거이론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자녀 대입 사교육에 적극적 인 대입 수험생 엄마 여가 경험을 근거이론 방법 으로 분석하여 통합적 근거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다. 따라서 주요 연구 문제를 ‘자녀 대입 사교육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입 수험생 엄마는 입시 과정 중 어떻게 여가를 경험하였는가?’로 설정하 고 여가제약-협상-참여 과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구체적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대입 수험생 엄마는 여가제약을 경험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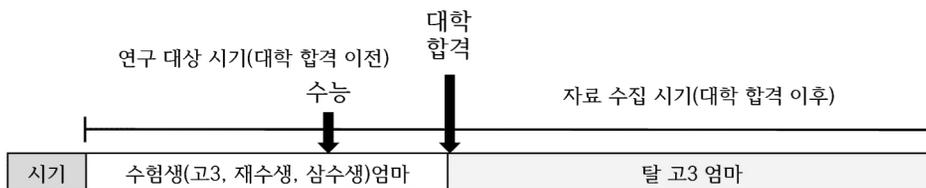
연구 문제 2: 대입 수험생 엄마는 여가제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자 선정과 심층 면담 (in-depth interview)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자녀 대학 입시 경험이 있고 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엄마이다. 사교육에 적극적이었는가 여부의 기준 이 모호하므로, 자녀의 수험시기 사교육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 였다. 통계청 (2022a)에 따르면 2021년 초중 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8.5만 원으 로 조사되어 100만 원 이상 지출은 자녀 사교육 에 적극적인 것으로 같음하였다. 탈 고3 엄마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입시 기간 중에는 심적으로 예민하므로 심층 면담을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지 만 수험생 엄마가 여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편향된 (biased) 응답 가능성이 있어서였다. 연구 대상 과 자료 수집 시기는 <그림 1>과 같다.

대상 선정은 Strauss and Corbin (1998) 이 제시한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을 활용하였다. 즉, 이론적 표집이란 자료의 적 절성과 포화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연구에서 는 목표 표집법을 통해 최초 표집을 연구자 주 변의 탈 고3 어머니로 수행하였고, 다음으로 연 구참여자의 소개를 받는 식으로 눈덩이 표집법 (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그림 1> 연구 대상 시기와 자료 수집 시기

포화성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가 없이 중복되어 나타나 이론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총 14명이며, 연구참여자는 마지막 자녀까지 최소 1명 이상 대학을 보낸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충분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

다음 단계로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예비면접을 통해 심층 면접 내용이 연구 주제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예비면담은 연구참여자 기준에 부합된 2명의 참여자를 차례로 개별 심층 면담을 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심층 면담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고, 연구 참여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준비하여 본조사에 적용하였다. 선정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2022년 4월 초부터 5월 중순 및 10월 초에 걸쳐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면담에 관한 지침을 일관적으로 제공하므로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할 수 있고 자료의 구조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Flick, 2018).

도입 질문은 거주지, 자녀 구성, 대학 진학 형태, 합격 후 경과 기간, 종교, 과거와 입시 중 직업, 입시 중 주된 여가 활동 및 이전 여가 활동 지속 여부 등 기본적인 질문들이다. 대학 합격 후 경과 시간에 따라 기억의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2년 이내로 한정하였다. 핵심 질문으로는 어머니의 여가생활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초기 25개의 문항으로

〈표 1〉 연구참여자

ID	나이	거주지	자녀 구성	대학 진학 형태	합격 후 경과	종교	본인 직업 (과거/입시 중)	자녀 입시 중 주된 여가 활동	이전 여가 활동 지속 여부
1	54	서초구	아들1	현역	2년	가톨릭	드라마작가/전업주부	줌바, 신앙 봉사	X
2	52	강남구	딸2	둘다 현역	2년	X	전업주부	코딩	X
3	51	동작구	아들2	둘다 재수	1년	가톨릭	기간제교사	친목 활동	X
4	55	서초구	딸2	현역, 재수	2년	개신교	전업주부	블로그 포스팅, 신앙 봉사	X
5	49	서대문구	딸1, 아들1	둘다 재수	2년	X	중등영어학원 원장	골프	O
6	46	인천	아들2	둘다 현역	1년	불교	영어 튜터	바이올린, 신앙 봉사	O
7	57	서초구	아들1	현역	9개월	개신교	리서치 회사 프리랜서	골프, 신앙 봉사	O
8	50	영등포구	딸1, 아들1	둘다 재수	2년	X	간호사/전업주부	테니스	O
9	56	서초구	아들2	둘다 현역	2개월	X	대학 강사/전업주부	모바일 게임	X
10	55	경기도	딸1, 아들1	둘다 삼수	2개월	X	의사	요가, 수영, 흡쇼핑	X
11	54	서대문구	딸1, 아들1	딸 현역, 아들 재수	1년	X	전업주부/부동산 중개사	여행	O
12	48	강남구	아들1	재수	9개월	개신교	의사/전업주부	갤러리 방문	O
13	54	양천구	아들1, 딸1	둘다 재수	1년	가톨릭	의료기 회사 직원/전업주부	반려견기르기	X
14	52	강남구	아들2	현역, 재수	8개월	X	전업주부	OTT시청	X

〈표 2〉 인터뷰 질문

질문	구체적 질문 항목
도입 질문	- 연령, 거주지, 자녀 구성, 대학 진학 형태, 합격 후 경과 기간, 종교, 과거와 입시 중 직업, 입시 중 주된 여가 활동, 이전 여가 활동 지속 여부
자녀 입시 중의 여가생활	- 자녀 대입 준비 기간 동안 주로 했던 여가 활동과 수준 - 대학 진학 형태(고3, 재수, 삼수)에 따른 여가 활동 차이 - 주로 했던 여가 활동 시간과 장소 - 여가 활동 참여 형태(개인 혹은 동호회 등)
핵심 질문	
여가제약과 협상	- 수험생 엄마 시기 여가 활동의 제약 여부 - 여가 활동의 가장 큰 제약에 관한 구체적 의견 - 개인의 여가생활 참여와 지속을 위한 협상 방법
여가 참여에 대한 인식	- 여가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대입 수험생 엄마에게 여가 활동 참여의 의미

구성되었으나 예비 연구 참가자 2인과의 면담 중에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항이 재구성되었고, 수정된 문항으로 관광학 교수 2인에게 검토 받은 뒤 최종 9문항으로 도출되었다. 면담은 미리 제공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하였으나 참여자 상황에 따라 진행방식과 질문 내용은 약간씩 다르게 조정되었다. 시간은 개별면담식으로 참여자와 사전에 전화 통화 후 연구참여자가 편리한 장소로 결정하였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로 진행하였으며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허락하에 녹음되었다. 1차 면담 이후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시 별도로 전화 연락하여 추가 질문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며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서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한 자료가 포화상태로 판단된 시점에서 멈추었다.

3. 자료 분석

최근 관광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 문제를 경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면서 양적 연구 방법이 지배적이던 관광학에서도 질적 연구 방법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추세이다(Pilving et al, 2021). 근거이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덜 알려져 있거나 어떤 현상에 대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반화

를 위한 것이 아닌 연구 방식이다(Matteucci & Gnoth, 2017). Charmaz (2006)는 근거이론의 핵심적인 3가지 원리가 이론적 표집, 끊임없는 자료와 이론적 범주의 비교, 이론적 포화 상태라고 하였다. 자료 분석시 이론적 민감성을 위해 여가제약과 협상(Crawford et al., 1991; Jackson et al., 1993), 일-여가 연구(Hybholt et al., 2022) 등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Strauss and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법의 절차에 따라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개방 코딩은 개념과 범주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를 펼쳐 개념들을 발견하여 유사한 개념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밝힌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음성녹음 자료를 면담 내용과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면담 당일에 한글로 전사하였으며 여러 차례 읽으며 단어, 어구, 문장 등의 의미별로 분류하며 개념을 추출하였고 중심 내용의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서 축 코딩은 개방 코딩 뒤에 이어지는데 개방 코딩을 통해 해체된 자료와 범주들을 관련이 있는 형태로 재조합하는 과정이며 현상, 상황, 전략, 결과 등 패러다임 특성에 따라

연관시키는 과정이다(김영천, 2018). 축 코딩의 과정은 절차에 더욱 초점을 두고 패러다임 모형으로 구조화되며 이것은 Strauss and Corbin (1998)이 개념화한 코딩 패러다임에서 인과 조건, 중심 현상, 맥락 조건, 중재 조건, 작용/상호 작용 전략, 결과의 구성 요소들을 연결시킨다.

세 번째, 선택 코딩은 이론을 통합시켜 정교화하는 단계로서 중심 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표현한 핵심 범주를 규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이 연구에서는 축 코딩에서 패러다임의 모형을 구성하는 범주의 연결을 통합해 핵심 범주를 규정하였고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대입 수험생 엄마여가 경험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Guba and Lincoln (1989)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기준을 연구 과정에 적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자료 수집에서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 선정을 위해 사전면접으로 두 명을 심층 인터뷰하였으며 내용을 음성 녹음하고 자료 코딩에서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에 대해 참여자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적용 가능성’은 선행연구, 신문기사 등의 문헌조사에서 면담 중 참여자 답변이 연구의 의도와 일치하고 적절한지 외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종 14명이었으나 실제 참여한 연구자료 녹취파일에는 20명의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복된 내용이 나타나 내용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관성’은 연구의 신뢰성에 해당되므로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를 따르며 면담 실시 전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리 작성한 질문 지침서에 따라 반구조화된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자료 수집과 분석 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의 검토를 거쳤다. ‘중립성’은 연구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감정을 배제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개방 코딩

개방 코딩을 통해 개념어를 추출하고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개방 코딩은 단어와 문장을 검토하는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최종 도출된 개념은 유사 개념끼리 묶어 30개의 하위범주, 11개의 상위범주로 구분되었다(〈표 3〉).

2. 축 코딩

1) 패러다임 생성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를 토대로 축 코딩을 실시하였다.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의 과정을 통해 인과 조건, 맥락 조건, 중심 현상, 중재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구분하였고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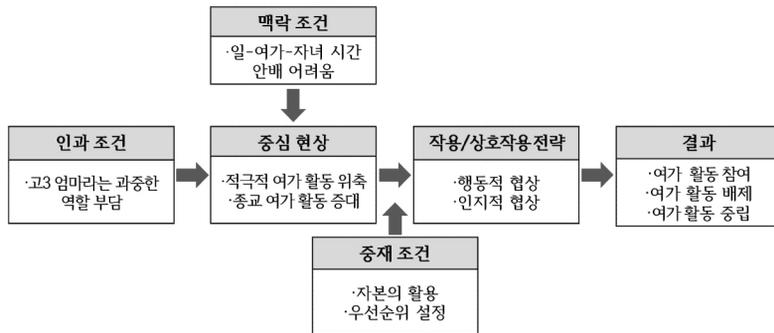
2) 인과 조건

인과 조건은 중심 현상의 원인 혹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는 범주이다.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을 설명하는 인과 조건은 수험생 엄마의 여가 위축 원인으로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에서 자녀를 기른 대입 수험생 엄마는 이 시기가 엄마로서, 자녀로서, 며느리로서, 직장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서 추가적으로 대입 수험생 엄마라는 역할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3 엄마 통과의례’를 치르고 있었으며 ‘직무 역할의 병행 부담’과 ‘다른 역할 일시적 중단’을 통해 자녀에게

〈표 3〉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개념 및 범주

개념	하위 범주	범주
엄마 여가 활동 당분간 접고 입시 전략에만 초집중, 자녀 매니저 역할이 주된 역할임, 내가 고3이 된 것 같은 부담이 돼서 여행이건 여가 활동이건 아무것도 안했음	고3 엄마 통과 의례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
직장에서 요구되는 업무량과 긴장감도 적지 않은데 아이가 고3이 되니 더욱 부담스러움	직무 역할의 병행 부담	과중한 역할 부담
직장도 그만두고 당분간 수험생 자녀에게 집중함, 자녀 집중으로 시댁 방문 불참이 허용됨	다른 역할 일시적 중단	과중한 역할 부담
아이마다 각각 다른 트랙 전략 모색하느라 마음이 급함, 1년 내내 압박감과 심리적 불안감, 운동하러 간 사이에 연락올까 걱정함, 고3 때는 실제로 시간이 없는 건 아닌거 같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 특별한 여가 활동 어려움, 추가 합격된 날까지 걱정으로 수면 부족, 삼수생인데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촉박감	심리 제약	
고3 엄마가 라운딩 가는 것도 눈치 보임, 혼자 하는 여가(블로그 포스팅) 활동이 좋음, 수험생 엄마는 아무도 (여행) 안가는 한국 사회 분위기	사회 제약	
자녀 사교육비로 여유 자금 없음, 과외, 학원, 인강 이렇게 1과목에 3가지 형태로 시켜 남편에게 과외비 금액 낮춰서 얘기함, 돈 안 드는 넷플릭스 시청, 새집 분양받아서 거기 들어가느라 비싼 여가 활동은 부담스러움, 시어머님 병원비도 형제들과 분담하고 있음, 애가 둘이라 큰 애 학비도 들어가서 여유 없음	경제 제약	
주부 일(식료품 구매, 청소, 요리 등)로 시간 부족, 파트타임으로 일도 했지만 거의 자녀 일에 매진하고 여유 없음, 악기하는 아이라 공부 외에도 일이 많음, 라이드로 바쁨, 학원 스케줄 관리, 학원 등록, 취소, 설명회, 컨설팅으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람, 자녀가 고3 현역일 때 재수생이나 삼수생보다 여유 시간 더 없음, 일하고 출장이라도 다녀오면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었음, 답임을 맡아서 제 시간에 퇴근도 못함, 일 시작하고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어 (의사로서) 늘 바빴음	시간 제약 (주부, 수험생 자녀, 직업으로 시간 부족)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가끔씩 여행가고 돌아다니는거 좋아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못함, 코로나로 학교도 한참 안갔고 집에서 학교랑 학원 공부까지 하니가 집에 붙어있는 엄마는 여유 시간이 아예 없음, 나가고 싶는데 수험생이 집에 있으니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 혹여 코로나 유행 올까봐 수험생 생각해서 모임도 아예 못했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입시제도로 엄마가 공부할 많이 해야 함, 현실적으로 엄마의 매니저 역할 없이는 성공 어려운 입시제도	환경 제약 (코로나19, 입시 환경)	
아이 스케줄 짜는 것도 힘들어 체력이 달려서 취미생활은 엄두도 안남, 아들 땀에 참다 참다 과호흡으로 앰블런스 부른 적도 있음, 고3 엄마 스트레스로 몸이 아픔, 주1-2회 정도 설명회 듣고 오면 체력이 달려서 여가 활동 못함, 불면증으로 그냥 집에서 휴식하며 넷플릭스 시청, 수시·정시 원서 쓸 때마다 신경 써서 입이 부르토고 고생함	신체 제약	
온라인 화상으로 교회 줌 미팅 수험생 100일 기도 모임에 참가, 오전에 미사 가고 저녁에 수험생 100일 기도 다녀오면 다른 취미활동 할 시간 없음, 법회뿐만 아니라 스님과 고3 엄마들과 같이 111일 화엄성중기도에 매진함	기도 모임 참가	종교 여가 활동 증대
자녀가 고3 되면서 수요일 예배와 구역 예배 후 봉사에 더 자주 참가하게 됨, 일부러 레지오 단체에 가입해 매주 봉사활동 시작함	종교단체 봉사	종교 여가 활동 증대
학원 운영하는 일도 머리 터질 것 같음, 답임을 맡아서 잔무 있을 때 늦게까지 근무할 때가 많은데 고3 수험생 있어 부담스러움, 유연성 없는 병원 일, 회사 업무로 며칠 출장도 있어 난감함, 직장을 계속 다니는게 옳은 것인지 회의감	직장 엄마의 어려움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
밥, 빨래가 다가 아니라 주식거래, 재테크 투자, 임대차 계약 등 잡다한 일도 많음, 시어머님이 아프셔서 시간 내어 음식도 하고 찾아가기도 함, 배달 음식 있다고 해도 매번 먹을 수도 없어 김밥 좋아하는 수험생 아이 때문에 늘 식사 준비도 신경 쓰임	전업주부의 어려움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

개념	하위 범주	범주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배웠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음, 여행이 주는 충만감은 대체 불가능, 친정엄마가 갤러리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미술관에 자주 감	문화 자본	자본의 활용
자신에게 투자도 중요함,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건데 내가 번 건 내가 써도 된다고 생각함, 여행할 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음, 나를 위한 약간의 비용은 떼어놓음	경제 자본	
키가 커서 테니스가 체형에 유리하고 적성에 잘 맞음, 유연한 편이라 (줌바)댄스에 무리 없음	신체 자본	
(골프)하고 싶어서 한계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끼워 주니까 하게 됨, 동호회에 가입하길 잘함, 같은 봉사자들끼리 친함, 수험생 봉사자끼리 모이는데 마음이 편안함	사회 자본	우선순위 설정
입시설명회와 운동 갈 시간 겹치면 당연히 수험생 일이 먼저임, 우선순위는 당연히 대학 입시지만 여행은 미리 계획하는 거라 일정을 바꿀 수 없어 그냥 다녀옴,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입시 때문, 몸이 아파 드러누워도 (대입 맞춤)컨설팅은 받으러 다녔었음	우선순위 설정	
자녀가 열심히 하는 만큼 엄마도 새로운 (코딩)공부를 시작함,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서브 기술을 연습함, 타수를 줄이기 위해 연습장에서 기술을 익히고 충분히 연습함	기술 습득	
일부러 대회 참가하며 테니스 연습을 습관화 함, 연습만 해도 되지만 일부러 (바이올린) 레슨을 받음, 돌아오자마자 다음 여행 계획에 착수함, (골프)동호회 여러 개에 가입해서 주기적으로 나감	습관 형성	행동적 협상
봉사하는게 가장 돈이 안들어감,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면 됨, (엄마) 공부하느라 돈 쓸 시간 없음, 저렴한 구민센터를 활용해서 (요가와 수영)돌아가면서 운동함	금전적 세이브	인지적 협상
골프는 팀 없으면 못함, 엄마들이 같이 하자고 하니가 같이 가서 (골프)채도 사고 쇼룸함, 자녀 초등학교 때 입원단 엄마들이랑 여행함	동반자 구축	
꾸준히 다니려고 노력, 매일 (블로그에) 업로드 하려고 함, 엄마들 모임을 줄이고 꾸준히 뭐라도 다니려고 함	여가 활동 의욕 고취	
어차피 부모는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므로 신앙 봉사활동으로 이 시기를 넘김, 여가생활이지만 종교단체에서는 일처럼 봉사해 몰입하게 됨,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함	종교 여가 활동으로 마음의 평화	여가 활동 참여
돌과구로서의 여가생활, 여행 가서 마음이 편해지면 아이에게 각 세우지 않음, 집중하는 데가 있으니 스트레스도 덜 받음, 고3 때 성질부릴 때 아이 뺨에 스트레스받아서 더 열심히 (골프)했음	여가 활동으로 시기 극복	
대입 준비로 약간 주춤했지만 한 번도 그만둔 적은 없고 (테니스)대회에 매번 출전함, 수능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엄마 여가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	여가 활동 참여는 본인의 선택	
홈쇼핑 지르기 하다가도 우리 애는 학원에서 고생 할텐데 하는 마음, 라이드 해주고 차에서 기다리면서 (모바일 게임)했지만 좀 더 신경썼더라면 하는 마음,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거 같아 후회됨,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듬	입시에 미련이 남음	여가 활동 중립
입시 준비 때부터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겼지만 운동을 못해 아쉬움, 그냥 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거 구민센터에서 배워 특별히 잘 하는게 없음	여가 참여 부족으로 아쉬움	
과탐 2까지 시켰는데 S대 수시 떨어졌을 때 좌절했지만 다른데 수시 붙은 길로 보상받음, 딸들 뒷바라지 하면서 혼자 시간 때우기로 블로그한게 전부였지만 대학을 잘 가서 만족함, 의대 최종 추합 소식 듣고 나서 할 일을 다 한 듯한 마음으로 직장일 재개함	여가 활동 없이도 만족	
대입 준비하는데 뒷바라지하는 게 보람되지 꼭 (여가)활동을 해야 할 필요 못 느낌, 엄마가 아이 잘 키우고 (대학)잘 보내면 가장 큰 성공이며 최고의 엄마로 인정받음	여가 활동 필요성 부재	여가 활동 배제



〈그림 2〉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집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 대학 보내기는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에 관련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3) 중심 현상

중심 현상은 인과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주는 중심 생각이나 활동이다(Strauss & Corbin, 1998). 한국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과정에서 중심 현상은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과 ‘종교 여가 활동 증대’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선행연구들(김진욱, 고은주, 2015; Craig & Mullan, 2011; Hybholt et al., 2022)과 마찬가지로 직장 엄마 혹은 전업주부 모두 자신을 위한 여가 활동이 대부분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은 여가제약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으로 ‘심리 제약’, ‘사회 제약’, ‘경제 제약’, ‘시간 제약’, ‘환경 제약’, ‘신체 제약’으로 나타났다. 심리 제약은 심리적 여유 부족, 압박감, 촉박감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사회 제약은 타인의 시선과 체면, 눈치, 가족의 비협조, 사회성 부족, 파트너 없음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경제 제약은 자녀 사교육비로 여유 자금이 없거나 기타 지출로 여가 생활비가 부담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시간 제약은 주부 일, 자녀 일, 직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 코로나19 혹은 입시 환경으로 인한 환경 제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체 제약은 고3병 스트레스나 자녀 매니저 일로 체력 부족의 의견으로 진술되었다. 이와 같이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은 Crawford et al. (1991)이 기존에 제시한 내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으로 담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제약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중심 현상으로 종교 여가 활동 증대도 도출되었다. 신앙을 가진 엄마는 자녀가 수험생이 되면서 ‘기도 모임에 참가’하기 시작하며 더 열심히 영적인 힘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종교단체에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수험생 어머니들은 신앙을 통한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지영, 2005; 최지원, 김수영, 2021).

4) 맥락 조건

맥락 조건은 중심 현상에 개입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여건을 말한다. 부연하면, 맥락 조건은 중심 현상의 직접 원인은 아니나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문화적 토대가 된다.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에서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과 종교 여가 활동 증대라는 중심 현상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는 맥락 조건은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으로 도출되

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엄마로서 업무로 인해 여유 시간이 없으며 전업주부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해내야 하는 중압감으로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중재 조건

중재 조건이란 중심 현상의 영향을 받으며 이에 대응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범주이다. 대입 수험생 엄마 여가 경험의 중재 조건은 '자본의 활용'과 '우선순위 설정'으로 분석되었다. Martin (2020)은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은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자본으로 구성된다고 개진하였다. 이 중 문화자본은 내면화된 문화 관점, 문화적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들이고, 경제 자본은 물질과 현금 보험 등 추후 예상되는 자산이다. 신체 자본은 건강, 체력 등의 생물학 특징뿐만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대하는 태도도 포함시켰고, 사회자본은 사회 관계망, 결정권자와의 친분 등이다(Martin, 2020). 연구참여자들은 '문화자본', '경제 자본', '신체 자본', '사회자본'을 중재 조건으로 활용하여 여가 활동이 위축된 상태의 중심 현상이 협상이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연결하였다. 우선순위 설정에서 모든 엄마들은 자녀 입시가 최우선 순위라고 진술하였으나 여행과 같이 스케줄이 정해진 경우에는 자신의 여가생활과 타협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6)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 현상이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전략의 범주들이다. 대입 수험생 엄마는 자녀 대입 시기 위축된 적극적인 여가 활동과 증대된 신앙 활동을 두 가지 전략인 '행동적·인지적으로 협상'하였다. 행동적 협상은 '기술 습득', '습관 형성', '금전적 세이브'와 '동반자 구축'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동

에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지속해온 여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레슨을 받거나 학원에 등록해 여가 참여 전략을 협상하였다. 인지적 협상은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서 '여가 활동 의욕 고취'와 '종교 여가 활동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전략으로 분석되었다. 자녀가 고3 수험시기를 겪어내는 동안 엄마도 열심히 삶을 살아내기 위해 여가 활동의 의욕을 고취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신앙생활과 봉사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결과

결과는 중심 현상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도출되는 최종 상태를 나타낸다.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은 결과적으로 '여가 활동 참여', '여가 활동 배제' 혹은 '여가 활동 중립'으로 분석되었다.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여가 활동 참여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며 여가 활동을 통해 자녀의 대입 준비 시기에 겪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여가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 활동을 배제하는 엄마는 인생의 최대 프로젝트인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에 대한 의욕이 커서 여가 활동 없이도 본인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는 여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지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여가 활동 중립 단계인 엄마는 수험생 자녀 엄마로서의 서포트를 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여가 활동에 미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선택 코딩

1) 핵심 범주와 이야기 윤곽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계약과 경험의 핵심

범주는 ‘자녀 사교육에 적극적인 한국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활동 의미 찾기’로 분석되었다. 관련하여 이야기 윤곽을 서술하면, 연구참여자들은 출산과 동시에 시작된 자녀 대입 프로젝트의 긴 시기에서 하이라이트인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에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고3 엄마 통과외레를 치르며 과중한 역할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고3, 재수생, 혹은 삼수생 엄마 시기에 직장 엄마와 전업주부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여가생활 위축이라는 중심 현상이 도출되었다. 여가생활이 위축되는 제약으로는 심리, 사회, 경제, 시간, 환경, 신체 제약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엄마는 신앙 활동 즉, 종교 여가 활동이 증대되는 중심 현상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중심 현상을 양산하는 맥락 조건으로는 일과 여가와 자녀의 시간 안배 어려움으로 도출되었다. 이것은 직장이 있는 엄마와 전업주부인 엄마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적인 행동 협상과 인지 협상을 통해 여가 활동에 참여, 여가 활동을 배제, 또는 여가 활동과 입시 사이에서 중립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여가 경험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행동적·인지적 협상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영향을 주는 중재 조건으로 개개인의 문화, 경제, 신체, 사회 자원이 활용되고 있었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대입 수험생 엄마들은 대부분 자녀 입시가 최우선이라는 데에 일치하였다. 한국에서 자녀 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입 수험생 엄마들의 공통 특징으로는, 이미 탈 고3 엄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감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직장을 가졌던 엄마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후회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일을 해본 적 없는 엄마는 조사하는 탈 고3 엄마인 현시점에서 생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9.1%로 OECD 평균(63.8%)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통계청, 2022b),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고 전업주부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74.6%라는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가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

2) 유형화

〈표 4〉와 같이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된 3가지 유형을 이 연구의 근거이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현재 46세에서 57세에 해당하는 탈 고3 엄마들은 X세대에 해당하며(Pew research center, 2020.04.28.), 한국이 개발도상국일 때 태어난 부모와 선진국일 때 태어난 Z세대의 중간 세대

〈표 4〉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유형분석

요소	위라벨형	전통형	중립형
인파 조건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 (중)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 (강)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 (강)
중심 현상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약) 종교 여가 활동 증대 (무관)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강) 종교 여가 활동 증대 (강함)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중) 종교 여가 활동 증대 (없음)
맥락 조건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 (여가시간 안배)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 (자녀 시간 안배)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 (중간)
중재 조건	자본의 활용 (적극 활용) 우선순위 설정 (여가도 중요)	자본의 활용 (비활용) 우선순위 설정 (자녀 최우선)	자본의 활용 (중간 활용) 우선순위 설정 (중간)
작용/상호작용 전략	행동적 협상 (긍정) 인지적 협상 (긍정)	행동적 협상 (부정) 인지적 협상 (부정)	행동적 협상 (중립) 인지적 협상 (중립)
결과	여가 활동 참여	여가 활동 배제	여가 활동 중립

에 해당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여성들이 거의 없고, 무조건 희생하면서 자녀를 지원하는 세대도 아니며, 자녀의 삶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키지도 않는 이중 정체성 보유 세대로서 과도기의 엄마 역할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1) 워라밸형(work-life balanced type)

워라밸형은 자녀와 자신의 삶을 분리해서 판단하고 여가제약을 긍정적으로 협상하여 기존의 여가를 지속 유지한 유형으로서 자녀와 자신의 삶을 동일시 하는 여타 유형과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자녀 입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여가생활로 풀기 위해 여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오래전부터 지속해온 여가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이었다. 워라밸형에 속하는 대입 수험생 엄마들은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 강도가 타 유형에 비해 약하며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를 균형있게 조절하고 있었다. 개인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자녀 입시뿐만 아니라 여가에도 둬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적·인지적 협상을 통해 여가 활동에 참여하였다. 전체 유형 중 유일하게 입시 중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유형이며 자신의 여가 활동으로 인해 입시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오랫동안 자신만의 특별한 여가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더라도 재개했을 때 더욱 발전된 여가 활동을 하여 아마추어 싱글 골프, 테니스 선수권대회 출전, 오케스트라 입단 등 다소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문화자본 등 자신이 보유한 자원은 엄마에게 성숙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 유형에는 연구참여자 5, 6, 7, 8, 11이 해당된다.

(2) 전통형(conventional type)

전통형은 한국의 전형적인 엄마와 마찬가지로 자녀 대입 준비 중에 자신의 여가 활동을 배제한 자기 헌신적인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전문직이

나 고학력 수준의 엄마들이 자녀 대입 수험기간에는 자신의 직장을 과감히 중단하면서 자녀에게 헌신한 엄마도 포함되었고, 여가 활동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배제하였으나 종교를 가진 경우 신앙 활동은 증대하였다. 고3 엄마 통과의를 단단히 치르며 적극적 여가 활동이 강하게 위축되었고, 일과 여가와 자녀 시간 중 자녀 시간 안배에 더욱 치중하였다. 우선순위를 자녀 입시에 배치하였으며 여가 활동을 위한 행동적·인지적 협상은 다소 부정적으로 타협하였다. 워라밸형이 기존의 여가를 지속 유지한 것과 달리, 전통형은 자녀 수험시기에는 사교육과 대입 전략에 집중하여 여가 활동을 신앙 활동과 같이 소극적인 활동 위주로 하였으나 자녀 대입 성공 후 직장 일을 재개한 참여자들도 있다. 대입 수험생 엄마 시기에 자신보다는 좀 더 자녀에게 치중하는 삶을 살았으나 무조건적 헌신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직장 엄마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에서 유지했던 긴장감과 열정을 자녀교육에 목표지향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엄마는 자녀들을 만족할만한 대학에 입학시켰고 자신이 좋은 학벌을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벌에 대해 암묵적 합의가 있었으며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 독사(doxa)는 명확히 부각되지 않았다. 이 유형에는 연구참여자 1, 3, 4, 12, 14가 해당된다.

(3) 중립형(in-between type)

이 유형은 대입 수험생 엄마 시기 꾸준히 지속한 여가 활동이 없어 워라밸형과 다르며, 전통형처럼 여가 활동을 배제하지도 않아 중간 정도에 머무는 유형이므로 중립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들은 전통형과 마찬가지로 고3 엄마 통과의를 강하게 겪었으며, 적극적인 여가 활동은 다소 위축되었다. 자녀 입시 동안에 사교육에도 열중했으나 일과 여가와 자녀에게 시간 안배를 고루

고루 한 편이었다. 따라서 자녀와 여가 중 우선 순위 설정이 중간에 해당되어 행동적·인지적 협상은 중립적이었다. 여가 활동을 호핑(hopping)하는 타입, 즉, 전업주부로서 주변인을 따라 여가 활동을 바뀌며 하였거나 전업 직장 엄마로서 바쁜 일과에 쫓겨 특별한 여가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시기를 보낸 엄마들이다. 이 유형은 수험생 엄마 시기를 겪고 난 지금에서야 왜 당시에 타협해서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지 후회하고 있고, 대입 수험생 엄마에게 여가 교육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표출하였다.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며 사는 이러한 유형의 엄마는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둥지 증후군(Raup & Myers, 1989)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 유형에는 연구참여 2, 9, 10과 13이 해당되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직업 면에서 다른 유형으로서 연구참여 2는 전업주부이며, 연구참여 9와 13은 직장에 다니다 자녀교육으로 경력단절 엄마이고, 연구참여 10은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는 전업 직장 엄마였다.

V. 결론 및 시사점

워라벨의 트렌드와 핵가족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훨씬 증가된 자유시간과 높아진 삶의 질을 향유하고 있는 현대 엄마의 삶에도 불구하고, 학벌주의와 청년실업 문제 등 치열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는 한국의 입시 문화로 인해 유자녀 엄마의 삶에서 여가생활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대학 입시 사교육에 적극적인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계약과 경험을 이해하고자 사회적 맥락과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행위자 인식 관련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근거이론 기법을 적용하여 통합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계약을 양산하는 인과 조건은 고3 엄마라는 과중한 역할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자녀가 고3 즉, 대입 수험생인 엄마는 하위문화(sub-culture)를 공유하는 특수한 코호트로서 한국에서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중요하게 거쳐야 하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었다. 수험생 엄마가 되면서 직무 역할과 병행이 부담되었고 다른 역할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김진옥, 고은주, 2015; Hybholt et al., 2022)에서 여성이 직업과 가족에 대한 시간 병행에 대한 어려움의 원인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입 수험생 엄마 여가 경험의 중심 현상으로는 적극적 여가 활동 위축과 종교 여가 활동 증대로 나타났다. 다양한 맥락에서 여가계약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박세르게이, 차석빈, 2021; 이경여, 정지연, 2022; Jiang et al., 2020; Nyaupane & Andereck, 2008; Zheng et al., 2017) 기존에 Crawford et al. (1991)이 제시한 3가지 여가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Kyukendall et al. (20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대입 수험생 엄마에게 나타나는 여가 활동 위축에서 다른 형태의 여가계약을 제시하였다. 대입 수험생 엄마는 불안감, 압박감, 마음의 여유 부족 등 심리 제약이 크게 작용했으며 시간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행을 가기 어렵고 마음껏 여가생활을 할 수 없다는 즉, 남의 눈을 의식하는 체면과 눈치가 사회 제약으로 도출되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와 입시 환경으로 인한 환경 제약도 도출되었다. 이러한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조건은 일-여가-자녀 시간 안배 어려움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자녀 대입 수험생 시기 동안 엄마의 여가 참여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여가 활동 참여, 여가 활동 배제 및 여가 활동과 입시 사이

의 중립 형태로 도출되었다. 여가 활동의 참여는 행동적 협상이나 인지적 협상이라는 긍정 전략이 활용된 것으로 도출되었다. 박세르게이, 차석빈(2021)의 연구에서도 고려인의 여가 제약 협상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행동적 협상과 인지적 협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협상을 초래하는 중재 조건으로 엄마들은 문화·경제·신체·사회 자원을 활용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tín (2020)은 비슷하게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비슷한 아버투스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학력 즉 지식 자본과 문화자본은 구별되는 자본으로서, 이 연구에서도 직업이 의사인 두 엄마들의 여가 경험은 다르게 도출되었고, 어려서부터 문화자본을 보유한 어머니들은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도 악기 연주 등을 자연스럽게 지속하였다. 사회자본이 충분한 엄마는 고독이나 우울감을 경험할 틈이 없이 바쁘게 친목 도모 여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시간 자본은 직장 엄마로서 얻는 경제 자본과 상충되고 있었고(이수민, 김경식, 2021), 여가 활동을 재개하는데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넷째, 자녀 입시 사교육에 적극적이었던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즉, 위라벨형, 전통형, 중립형으로 도출되었는데 위라벨형은 여가 활동에 참여, 전통형은 여가 활동 배제, 중립형은 여가 활동과 입시 사이 중간 유형이었다.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자녀 사교육에 적극적인 엄마의 여가 경험은 대입 수험생 엄마 시기에 직장 유무와 상관없이 여가 활동은 결국 자신의 의지와 개인 환경적 뒷받침, 국가의 여가정책 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대학 입학이 엄마 인생의 엄청난 무게를 차지하고 있던 그들에게 여가 활동의 참여는 물리적인 시간에 비례하지 않았다. 많은 여가

참여 제약들이 있지만 결국 협상을 통해 스스로 여가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문화자본, 경제자본, 신체 자본, 사회자본 등을 활용하여 여가 있는 삶을 향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는 지속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고 더욱 발전된 여가 활동으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이론적 기여로는 첫째, 한국적인 맥락이 반영된 한국 고3을 비롯한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질적 연구 대상의 폭을 확장하였다는 데에 기여하였다. 여가 연구에서 청소년, 중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대상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으나(김소진, 2015; 박나래, 이미숙, 2021; 양원희 외, 2021), 이 연구에서는 특수 코호트인 대입 수험생 엄마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였다. 그리고 고3 엄마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고3 엄마의 심리 측면(고인순, 김경신, 2001; 양성은, 2005; 최지영, 2005) 혹은 교육 측면(이정화, 2004)의 연구로 진행되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여가 경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한 초기 연구라는데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근거이론을 통해 새롭게 탐색된 이론들은 향후 설문 문항으로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측정에 이를 환류할 수 있고, 발견된 이론 타당성과 일반화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작업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Charmaz (2006)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근거이론의 개념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즉, 이 연구의 결과로서 여가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혹은 제약하는 중심 현상이 심리, 사회, 경제, 시간, 환경, 신체 제약이라는 다차원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토대로 척도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현상에 대한 이해 방식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다. 또한 여가 활동을 재개하는데 중재 변수로서 다양한 자본이 활용된다는 것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질

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양적 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여가 연구의 확장으로서 Crawford et al. (1991)이 제시한 내적, 대인적, 구조적 여가제약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의 고3 엄마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눈치와 체면 관련 사회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과 자녀의 스케줄에 따른 유동적인 시간 제약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제약도 존재하였다. 유교문화에서 중시하는 체면은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문화이며(이경여, 이훈, 2020), 한국의 체면은 중국이나 일본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Crawford et al. (1991)이 제시한 대인적 여가제약의 새로운 형태로서 한국적 맥락이 반영된 문화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여가제약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구조적 제약요인을 시간, 정보, 혹은 시설 부족 등 제한적으로 접근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사회구조 변수로 인한 한국의 입시 환경이라는 상부구조가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를 환경적, 심리적으로 제약한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제약도 기존의 여가제약 이론에서 구조적 제약으로 아우르기에 한계가 있는 새로운 여가제약이었다. Kuykendall et al. (2020)의 연구에서 직장 일과 관련 여가제약 중에 자신이 작업 스케줄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 타임 일이지만 풀타임 이용가능'의 여가제약이 존재한다는 결과는 이 연구에서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역할이 전적으로 사교육을 책임지는 풀타임 직장처럼 여가가 제약되었다는 점에서 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를 문화·경제·신체·사회 자본으로 구분하여 확장시켰다는 데 기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여가 경험에서도 대입 수험생 엄마의 자본에 따라 여가생활을 지속하는데 차이가 있었으며 키가 커서 유리한 신체 자본을 가진 엄마의 경우 테니스를 통해 여가생

활을 지속하고 있었고, 경제 자본이 풍부한 엄마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여가 활동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문화자본이 있는 상류층에서 성장한 엄마는 악기 연주를 통해 자신의 여가 활동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노인의 여가 경험에서도 문화자본이 중재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김소진 (201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그 연구에서 노인들은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문화자본, 그리고 교환이 가능한 인적자원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여가 활동 향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노인이 기존에 습득했던 유창한 춤솜씨, 장기, 창 실력은 실제 여가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무적 기여로는 첫째,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인 중년층과 그중에서도 고3 대입 수험생 부모를 위한 여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가시간이 부족한 대입 수험생 엄마가 자기 삶의 중요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인지하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대입 수험생 엄마에게 레저스포츠 등록비 할인 혜택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여가 참여 촉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워라밸형에 속하는 엄마는 본인의 정신 건강에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여가 문화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지나친 학벌주의로 인해 자녀의 명문대학 입학이 자기 인생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독사는 여가 경험에 초점을 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둘째, 여성 인력 고용정책 수립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 자녀 대입 시기 동안 경력이 단절된 엄마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후 자신의 직장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며 직장이 없는 경우 더욱 여가 활동에 대한 의의를 두

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경력이 단절된 엄마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학원 실장직은 매력적이고 심리적으로도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돼지엄마'들을 상담실장직으로 고용하는 현상이나(프리미엄조선, 2014.03.03.), 강남, 서초, 송파 거주 엄마로서 2년 이내 자녀 서연고(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에 성공시킨 엄마를 리쿠르트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몇몇 엄마는 탈 고3 엄마가 되며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직장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직장에서 만족한 엄마는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행복 지수를 높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대입 수험생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실무자와 상담센터 관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중립형에 속하는 엄마는 특히 엄마의 지속적인 여가생활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피력하였는데, 전업주부나 직장 엄마 상관없이 대학을 보낸 후 후회와 죄책감을 표출하였다. 자녀 수험시기 일부 엄마는 행동적, 인지적 협상을 통해 여가 활동을 지속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엄마도 존재하였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엄마의 자녀 교육열이 자신의 여가 활동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사용될 수 있어야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것이다. 한국 엄마의 자녀 사교육은 지나치게 열정적이나 자신의 생활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존재감을 무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대입 이후 실존적 존재의 상실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함께 문턱이 낮은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넷째, 대입 수험생 엄마에 대한 교육 서비스 홍보와 캠페인이 요구된다. 한국에는 2001년부터 평생교육, 재취업, 재교육 차원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사이버대학교가 있으며 이외에도 학점 이수제, 평생교육원, K-MOOC 등 다양한 중

류와 분야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입 수험생 엄마에게 수업료 할인 등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관심을 가지게 될 엄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술하였듯이 중년층은 건강한 노년층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며 인생의 최고 정점이다(Lachman et al., 2015). 한국은 전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중년기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대입 수험생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고3 수험생 엄마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교육학, 심리학 측면에서 연구로만 진행되어 여가 측면의 연구라는 초기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이 자녀 대입 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입 수험생 엄마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수도권에 집중되고 비교적 중산층만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질적 연구방법이 일반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후속 연구로 자녀 사교육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대입 수험생 엄마의 여가 경험 조사가 시도된다면 좀더 폭넓은 견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녀 구성 순서, 성별 및 처음 수험생 자녀일 때와 막내일 때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추후에는 이것을 고려하여 엄마의 여가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자녀 입시 과정 중 여가생활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여가 활동의 특성상 자녀 입시 전 기간을 적확(的確)하게 제시하는 데 응답이 모호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중단연구로 연구참여자들을 연속적으로 관찰하여 대학 합격 전과 후의 시점을 비교하는 연구로 조사한다면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학벌주의가 심한 동양권뿐만 아니라 북미를 비롯한 타문화를 대상으로 이 연구의 확장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Lee, Kyung-Yur: Conceptualization, Research design, Collecting data and Writing(Original draft preparation).

Lee, Hoon: Conceptualization and Supervising.

References

고인순, 김경신 (2001). 고 3 수험생 어머니의 스트레스 인지,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65-90.

김동아 (2020).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중년여성의 여가열의가 지각된 신체적 유능감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9(1), 25-35. DOI : 10.35159/kjss.2020.02.29.1.25

김소진 (2015). 노인의 여가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복지사회>, 2, 19-56.

김영천 (2018). <질적연구방법론>. 3rd ed. 아카데믹프레스

김진욱, 고은주 (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DOI : 10.15855/swp.2015.42.2.135

김희정, 조영아 (2018). 중·고등학생 어머니의 자녀학습관여 과정.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591-624. DOI : 10.22251/jlcci.2018.18.20.591

박나래, 이미숙 (2021). 시각장애 특수학교 고등학생의 여가생활에 대한 경험과 인식. <교원교육>, 37(2), 671-690. DOI : 10.14333/KJTE.2021.37.2.30

박세르게이, 차석빈 (2021). 한국거주 고려인의 여가 제약 협상: 근거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45(7), 33-58. DOI : 10.17086/JTS.2021.45.7.33.58

박정은, 이훈 (2013). 취업준비 중인 대학생의 여가 경험 분석: 자기계발 강박 현상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7(10), 205-22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cle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24078>

법제처 (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819&lsiSeq=232127#0000>

양성은 (2005). 고 3 수험생 어머니의 입시준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3(2), 49-61.

양원희, 여인성, 이정일 (2021). 중년 여성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여가태도와 여가인지 및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30(1), 185-194. DOI : 10.35159/kjss.2021.2.30.1.185

이경여, 이훈 (2019). 여가스포츠에서 관계성 효과 분석: 집단과 개인 여가스포츠 비교. <관광학연구>, 43(1), 55-73. DOI : 10.17086/JTS.2019.43.1.55.73

_____, 이훈 (2020). 축제참가자 일탈행동에서 체면 민감성의 역할 분석. <관광학연구>, 44(4), 191-210. <http://dx.doi.org/10.17086/JTS.2020.44.4.191.210>

_____, 정지연 (2022). 코로나 19 시기에 따른 자연 기반 관광의 건강 신념 지각 차이 연구 건강 신념 모델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적용. <관광학연구>, 46(5), 113-136. <http://dx.doi.org/10.17086/JTS.2022.46.5.113.136>

이수민, 김경식 (2021). 어머니의 사교육 실천의 구조적 원인: 부르디외의 아비투스틀 활용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1, 101-140. DOI : 10.32465/ksocio.2021.31.4.004

이정화 (2004). 고 3 어머니의 모성(母性)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17, 95-120.

임성택, 여성민, 조유미 (2012).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과학연구>, 43(4), 271-29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cleView.kci?sereArticle>

전지열, 신지영, 최준섭, 김정환, 이동훈 (2019).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1-48. DOI : 10.23844/kjcp.2019.02.31.1.1

- 정주영, 정철, 이훈 (2012). 근거이론을 이용한 장애아 부모의 여가적응과정. <관광학연구>, 36(2), 301-322.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38263>
- 조선일보 (2022.04.11.). '18세까지 3억원' 한국 양육비 부담 세계 최고 짝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4/11/46J77RI4ENDY3CLGETIPOSHTYQ/naver-news
- 조영진, 권순형, 김도기, 문영빛 (2015).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 결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3(1), 287-308. 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
- 지현진 (2006). 기혼여성의 여가스포츠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3), 17-26.
- 최지영 (2005). 수험생어머니의 불안과 가족경계에 관한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가족과 가족치료>, 13(1), 31-56. <https://kiss-kstudy-com-ssl.access.hanyang.ac.kr:8443/thesis/thesis-view.asp?key=3165340>
- 최지원, 김수영 (2021). 청소년기 자녀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837-854. <https://doi.org/10.5392/JKCA.2021.21.05.837>
- 컨슈머인사이트 (2022.05.17.). <여가활동 관심? 젊을 때 '오락 휴식' 나이 들면 '운동'>. https://www.consumerinsight.co.kr/voc_view.aspx?no=3248&id=pr10_list
- 통계청 (2022a).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 (2022b). <경제활동 인구조사>
- 프리미엄조선 (2014.03.03.). 대치동 '돼지엄마'들 학원 데스크를 장악하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8/2014022802786.html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보건복지 실태조사>.
- Aitchison, C. C. (2005). Feminist and gender perspectives in tourism studies: The social-cultural nexus of critical and cultural theories. *Tourist Studies*, 5(3), 207-224. <https://doi.org/10.1177/1468797605070330>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 Medicine*, 66(8), 1733-1749.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8.01.030>
- Bray, M. (2013). Shadow education: Comparative perspectives on the expansion and implications of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77, 412-420. <https://doi.org/10.1016/j.sbspro.2013.03.096>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Sage.
- Choi, Y., & Park, H. (2016). Shadow education and educational inequality in South Korea: Examining effect heterogeneity of shadow education on middle school seniors' achievement test score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4, 22-32. <https://doi.org/10.1016/j.rssm.2016.01.002>
- Craig, L., & Mullan, K. (2011). How mothers and fathers share childcare: A cross-national time-use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6), 834-861. <https://doi.org/10.1177/00031224114276>
- Crawford, D. W., & Godbey, G.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2), 119-127. <https://doi.org/10.1080/01490408709512151>
- _____, Jackson, E. L., & Godbey, G. (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4), 309-320. <https://doi.org/10.1080/01490409109513147>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ed, 2.
- Flick, U. (2018).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 research. Sage.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Sage.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 (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1), 1-11. <https://doi.org/10.1080/01490409309513182>
- Jang, I. Y., Lee, H. Y., & Lee, E. (2019). Geriatrics fact sheet in Korea 2018 from national statistics.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23*(2), 50-53. doi: 10.4235/agmr.19.0013
- Janssen, I. (2015). Hyper-parenting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among 7-12 year olds. *Preventive Medicine, 73*, 55-59. <https://doi.org/10.1016/j.ypmed.2015.01.015>
- Jiang, J., Zhang, J., Zheng, C., Zhang, H., & Zhang, J. (2020). Natural soundscapes in nature-based tourism: leisure participation and perceived constraints. *Current Issues in Tourism, 23*(4), 485-499. <https://doi.org/10.1080/13683500.2018.1540559>
- Hybholt, M., Ottesen, L. S., & Thing, L. F. (2022). Exercise in the time bind of work and family: Emotion management of personal leisure time among middle-aged Danish women. *Leisure Studies, 41*(2), 231-246. <https://doi.org/10.1080/02614367.2021.1975801>
- Kekäläinen, T., Freund, A., Sipilä, S., & Kokko, K. (2018).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leisur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Causal relationships in midlife. *Innovation in Aging, 2*(suppl_1), 65-66. DOI:10.1093/geroni/igy023.247
- Kuykendall, L., Zhu, Z., & Craig, L. (2020). How work constrains leisure: New ideas and directions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51*(5), 635-642. <https://doi.org/10.1080/00222216.2020.1807841>
- Lachman, M. E. (2004). Development in mid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305-331.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5.090902.141521>
- _____, Teshale, S., & Agrigoroaei, S. (2015). Midlife as a pivotal period in the life course: Balancing growth and decline at the crossroads of youth and old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9*(1), 20-31. <https://doi.org/10.1177/0165025414533223>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Random House Digital, Inc.
- Loyalka, P., & Zakharov, A. (2016). Does shadow education help students prepare for college?: Evidence from Russi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49*, 22-30. <https://doi.org/10.1016/j.ijedudev.2016.01.008>
- Märtin, D. (2020). <아비투스.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배명자 역). 다산북스. (2019).
- Matteucci, X., & Gnoth, J. (2017). Elaborating on grounded theory i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65*, 49-59. <https://doi.org/10.1016/j.annals.2017.05.003>
- Mattingly, M. J., & Bianchi, S. M. (2003).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ree time: The US experience. *Social Forces, 81*(3), 999-1030. <https://doi.org/10.1353/sof.2003.0036>
- Ng, F. F. Y., Pomerantz, E. M., & Deng, C. (2014). Why are Chinese mothers more controlling than American mothers? "My child is my report card". *Child Development, 85*(1), 355-369. <https://doi.org/10.1111/cdev.12102>
- Nyaupane, G. P., & Andereck, K. L. (2008). Understanding travel constraints: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a leisure constraints model.

- Journal of Travel Research*, 46(4), 433-439.
<https://doi.org/10.1177/0047287507308325>
- Offer, S. (2016). Free time and emotional well-being: Do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differ?. *Gender & Society*, 30(2), 213-239.
<https://doi.org/10.1177/0891243215596422>
- OECD. (2014). "Supplementary Education in East Asia", in *Lessons from PISA for Korea*, OECD Publishing, Paris.
- _____. (2019). *Secondary graduation rates*.
<https://data.oecd.org/students/secondary-graduation-rate.htm>
- _____. (2022, March 27). *Gender wage gap (indicator)*. doi: 10.1787/7cee77aa-en
- Pew Research Center. (2020.04.28.). *The generations defined*.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4/28/millennials-overtake-baby-boomers-as-americas-largest-generation/ft_20-04-27_generationsize_2/
- Pilving, T., Kull, T., Suškevics, M., & Viira, A. H. (2021). Creating shared collaborative tourism identity in a post-communist environment. *Scandinavi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21(3), 313-340. <https://doi.org/10.1080/15022250.2021.1893214>
- Qu, Y., Pomerantz, E. M., & Deng, C. (2017). Mothers' goals for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tent and transmiss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6(1), 126-141. <https://doi.org/10.1111/jora.12176>
- Raup, J. L. & Myers, J. E. (1989). The empty nest syndrome: myth or real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180-183. DOI: 10.1002/j.1556-6676.1989.tb01353.x
- Rodríguez-Bravo, A. E., De-Juanas, Á., & García-Castilla, F. J. (2020). Effect of physical-sports leisure activities on young people's psychological wellbeing. *Frontiers in Psychology*, 2839. <https://doi.org/10.3389/fpsyg.2020.543951>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Sage.
- Thrane, C. (2000). Men, women, and leisure time: Scandinavian evidence of gender inequality. *Leisure Sciences*, 22(2), 109-122. <https://doi.org/10.1080/014904000272885>
- Van Gennep, A. (1961). *Rites of pass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heng, C., Zhang, J., Zhang, H., & Qian, L. (2017). Exploring sub-dimensions of intrapersonal constraints to visiting "dark tourism" sites: A comparison of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2(1), 21-33. <https://doi.org/10.1080/10941665.2016.1175489>
- Zhang, W. (2020). Shadow education in the service of tiger parenting: Strategies used by middle-class families in China.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55(3), 388-404. <https://doi.org/10.1111/ejed.12414>